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5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15 꾸러기 식자교실(재) 4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조선변호사(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모범택시 2(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2023 홀트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20 스튜디오 K(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구르곰 구르담(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2023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2 15 뽀족마을의 수상한 이웃들 30 놓친 예는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한국민영방송대상 시상식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영곡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흥감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노매니 노아트	00 시사 용광로	00 수확 없는 수확여행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방과 후 설렘 시즌2 소년판타지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10 살리는 남자들(재)		
[12]	10 9층 시사극(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통합뉴스룸 ET(재)	00 문화콘서트 난장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감독님 믿고 영화 출연 결심”

“감독님요. 그분의 스타일을 믿었어요.”
1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서준은 어떤 부분에 끌려 ‘드림’의 흥대역을 맡게 됐느냐는 질문을 받자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
‘드림’은 ‘스물’ (2015), ‘극한직업’ (2019) 등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축구선수 출신 흥대와 열정 없는 PD 소민(아이유)이 오합지졸 선수들과 홈리스 월드컵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2010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박서준은 20대 시절 ‘스물’을 인상 깊게 본 이후 이 감독과 작업해 보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고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장면을 최대한 재밌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드림’서 축구선수 출신 흥대역 박서준
“연기하며 결과보다 과정 중요함 깨달아”
프로축구 선수처럼 보이려 하루종일 맹훈련

그가 연기한 흥대는 이 감독이 전작에서도 자주 선보였던 허술하고 코믹한 캐릭터다. 말쑥한 허우대와는 달리 행동은 묘하게 찌질하다.
맑은 광이 나는 한 기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버리고, 같은 팀에서 뛰는 라이벌과 경기 도중 달리기 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박서준은 “감독님께서 최대한 하찮아 보이게 연기하라고 주문했다”며 웃었다.
그는 인생의 쓴맛을 본 노숙인들이 모여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꿈을 꾸는 따뜻한 이야기에든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흥대를 연기하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바라보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노숙인 선수를 연기한 선배님을 보며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 충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굳이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흥대처럼 성장한 셈이죠.”
전직 프로축구 선수를 연기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실제로 축구해야 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어 맹훈련에 몰입해야 했다.
박서준은 “2010년 홈리스 월드컵 감독님으로 갔던 분이 풋살 경기장에서 직접 저를 지도해주셨어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네 조기축구회서 하루 종일 뛰다 왔습니다.”
박서준에게 ‘드림’이 더 특별한 작품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촬영이 잇따라 연기돼 크랭크인 2년 만에 개봉하게 됐기 때문이다.
“드디어 개봉일이 와서 관객을 만나게 되니 그 자체로 의미가 큼니다. 스크린에서 내려가기 전에 꼭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필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음 3월 1일 戊申) ☎ 010-9790-8237

<p>子 36년생 금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48년생 통쾌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60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72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96년생 행동력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3, 76</p>	<p>卯 39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51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평함이 사라지리라. 63년생 포괄적인 조치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니라. 75년생 눈 부신 옛날처럼 행운이 비취울 것이다. 87년생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제때 활용할 수 있다. 99년생 목전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71</p>	<p>午 42년생 불편한 입장이 서게 되는 풀이다. 54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66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78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90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02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5, 99</p>	<p>酉 45년생 과욕은 퇴보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57년생 무작정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69년생 성사될 수 없는 일이나 허황된 생각은 버리라. 81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번 낫다. 93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라. 05년생 풀리게 되어 있으니 마음 놓아라. 행운의 숫자 : 37, 79</p>
<p>丑 37년생 욕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49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백번 낫다. 61년생 해답을 얻기 위해 서 전전긍긍하는 대국이다. 73년생 줄어드는 듯하다가 머지않아 증폭될 것이다. 85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97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94</p>	<p>辰 40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52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64년생 기발한 요령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올 것이다. 76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알라. 88년생 뻘허 다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00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처지니라. 행운의 숫자 : 45, 84</p>	<p>未 43년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번득이는 지혜도 솟아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55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67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79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91년생 조처하고 볼 일이다. 03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2, 52</p>	<p>戌 34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라. 46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58년생 입안에서 맴돌아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82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94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행운의 숫자 : 26, 73</p>
<p>寅 38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나다. 62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74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86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98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9, 74</p>	<p>巳 41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지경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라. 53년생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쳐야 의미가 있다. 65년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니라. 77년생 잠시 주춤했다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라. 89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01년생 가법계 넘겨도 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6, 97</p>	<p>申 44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고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56년생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쳐라. 68년생 형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80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92년생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를 만만하다. 04년생 정도를 걸으면 붙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57</p>	<p>亥 35년생 남에게 말도 못 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47년생 기조는 불편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리라. 59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 71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83년생 감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95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7, 50</p>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